

결혼과 출산율

- 저출산의 원인은 초혼 연령의 증가 등 만혼화와 이로 인하여 자녀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출산 수준의 상승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 요구됨

- 초혼연령을 낮추고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결혼·출산 친화적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1. 출산율의 감소 경향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9년에는 1.15명으로 감소

○ 출생아 수는 1970년 1,007천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445천명으로 1970년 대비 44.2% 수준으로 감소

○ 이러한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감소는 조혼인율의 감소와 조이혼율의 증가 등 결혼 행태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음

· 조혼인율은 1970년 인구 천명당 9.2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6.2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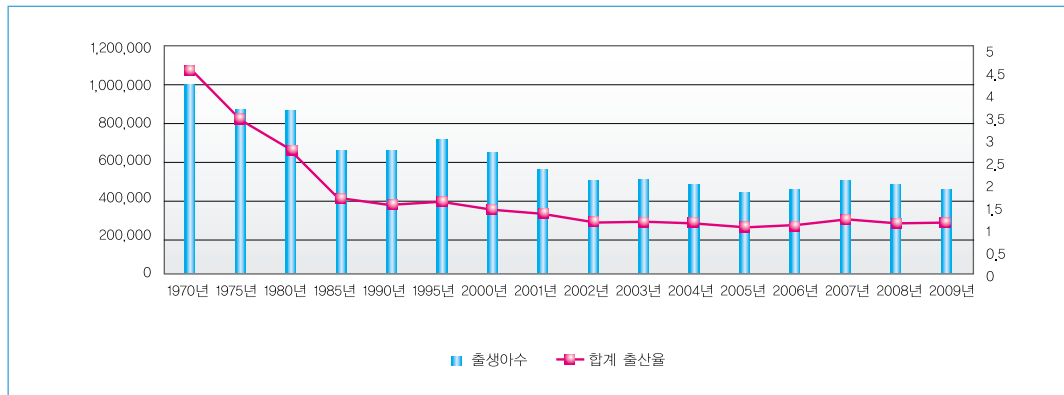
· 조이혼율은 1970년 인구 천명당 0.4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2.5명 수준으로 증가

[표 1] 합계출산율,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1970	1,006,645	4.53	295,137	9.2	11,615	0.4
1975	874,030	3.47	283,226	8.0	16,453	0.5
1980	862,835	2.83	403,031	10.6	23,662	0.6
1985	655,489	1.67	384,686	9.4	38,187	0.9
1990	649,738	1.59	399,312	9.3	45,694	1.1
1995	715,020	1.65	398,484	8.7	68,279	1.5
2000	634,501	1.47	332,090	7.0	119,455	2.5
2001	554,895	1.30	318,407	6.7	134,608	2.8
2002	492,111	1.17	304,877	6.3	144,910	3.0
2003	490,543	1.18	302,503	6.3	166,617	3.4
2004	472,761	1.15	308,598	6.4	138,932	2.9
2005	435,031	1.08	314,304	6.5	128,035	2.6
2006	448,153	1.12	330,634	6.8	124,524	2.5
2007	493,189	1.25	343,559	7.0	124,072	2.5
2008	465,892	1.19	327,715	6.6	116,535	2.4
2009	445,200	1.15	309,759	6.2	123,999	2.5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1] 합계출산율,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2. 출산율 저하 원인

-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의 감소는 첫째, 만혼이나 비혼 등 결혼의 기피 현상과 둘째, 결혼을 한 기혼의 경우 출산 기피에 기인

가. 만혼이나 비혼 등 결혼 기피

-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45세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이 증가
 - 1970년 20대 후반의 경우 미혼여성의 비율은 9.7%이고, 30대 후반의 경우 미혼율은 0.4%에 불과하나, 2005년의 경우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의 비율은 59.1%이고, 30대 후반의 미혼여성의 비율은 7.6%나 되고 있음
 - 1970년과 2005년 사이 미혼율의 증가는 49.4%p를 보인 20대 후반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20대 초반, 30대 초반의 순으로 나타났음
 - 45-49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1970년에는 그 비율이 0.0%로서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05년에는 2.4%나 되고 있어 결혼 행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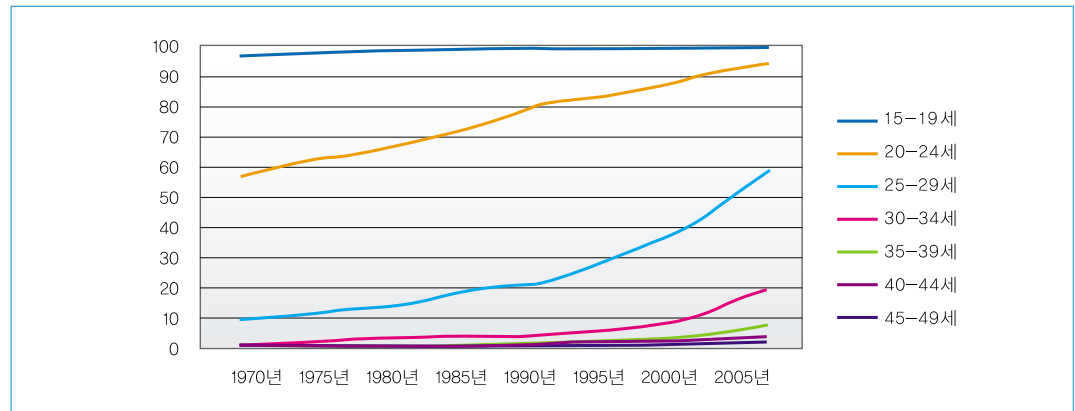
[표 2] 미혼율 추이

(단위 : %)

여성	1970년(A)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B)	B-A(%p)
15-19세	97.1	97.4	98.2	99.1	99.5	99.2	99.3	99.6	2.5
20-24세	57.2	62.5	66.1	72.1	80.5	83.3	89.1	93.7	36.5
25-29세	9.7	11.8	14.1	18.4	22.1	29.6	40.1	59.1	49.4
30-34세	1.4	2.1	2.7	4.2	4.3	6.7	10.7	19.0	17.6
35-39세	0.4	0.7	1.0	1.6	2.4	3.3	4.3	7.6	7.2
40-44세	0.2	0.3	0.5	0.7	1.1	1.9	2.6	3.6	3.4
45-49세	0.0	0.2	0.3	0.4	0.6	1.0	1.7	2.4	2.4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2] 여성의 미혼율 추이



□ 그 결과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초혼연령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1981년 남자는 26.4세, 여자는 23.2세 이던 것이 2008년에는 남자는 31.4세, 여자는 28.3세로서 남자는 5.0세, 여자는 5.1세 증가하였음
- 평균 초혼연령의 남녀간 차이는 약 3세 내외로서 지난 30여년간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음

[표 3] 성별 평균초혼연령

(단위: 세)

연도	남자	여자	차이
1981년(A)	26.4	23.2	3.2
1985년	27.0	24.1	2.9
1990년	27.8	24.8	3.0
1991년	27.9	24.8	3.1
1992년	28.0	24.9	3.1
1993년	28.1	25.0	3.1
1994년	28.2	25.1	3.1
1995년	28.4	25.3	3.0
1996년	28.4	25.5	3.0
1997년	28.6	25.7	2.9
1998년	28.8	26.0	2.8
1999년	29.1	26.3	2.8
2000년	29.3	26.5	2.8
2001년	29.6	26.8	2.8
2002년	29.8	27.0	2.8
2003년	30.1	27.3	2.9
2004년	30.5	27.5	3.0
2005년	30.9	27.7	3.2
2006년	31.0	27.8	3.2
2007년	31.1	28.1	3.0
2008년(B)	31.4	28.3	3.1
차이 (B-A)	5.0	5.1	-

자료: 통계청, Kosis

□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때문에,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자아 성취와 자아 개발을 위해 등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적어서,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실업이나 고용상태 불안 등 경제적 이유가 31.9%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영역	1순위	2순위
경제적 이유	31.9	27.6
사회적 이유	3.6	5.4
가치관	54.9	50.5
가족	1.4	2.1
건강	0.6	0.4
기타	7.6	13.9
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나. 출산 기피

□ 1981년 대비 2005년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은 20대 초반의 급격한 감소와 20대 후반의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거나 30대 이후에는 소폭 이나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만혼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됨

○20대 초반은 유배우 부인 천명당 202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1981년의 440명의 45.9%수준으로 감소

○20대 후반의 경우 유배우 부인 천명 당 출산아 수는 231명으로 1981년의 279명에 비해 82.8% 수준

○30대 초반의 경우 유배우 부인 천명 당 출산아 수는 108명으로 1981년의 97명에 비해 111.3% 수준으로 증가 경향

○30대 후반의 경우 유배우 부인 천명 당 출산아 수는 17명으로 1981년의 23명에 비해 73.9% 수준이나 1987년 이후 부터는 증가 경향

○그러나 출산율 감소효과(B-A)는 20대 초반에서 유배우 부인 천명당 238명이 감소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후반의 경우 48명 감소하여 30대 초반의 소폭 증가 효과를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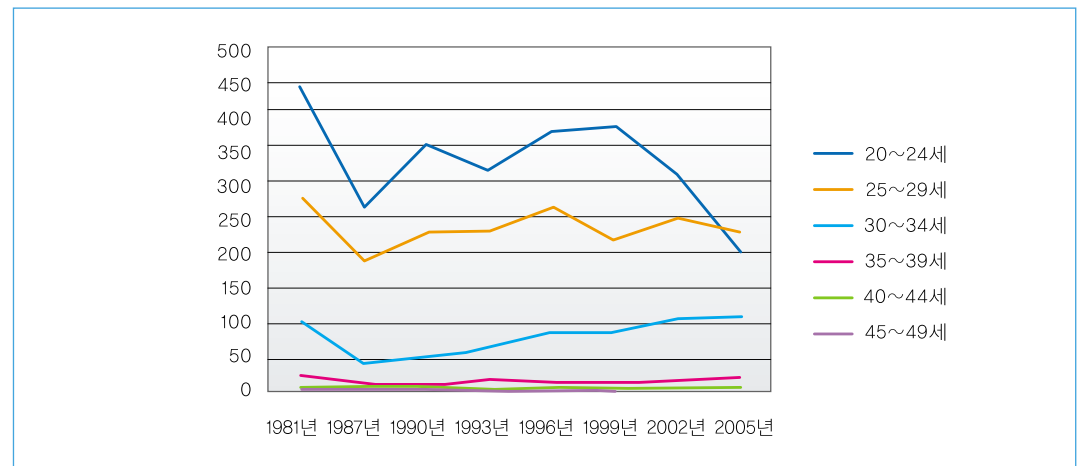
[표 5]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1981~2005년도

(단위: 유배우 부인 1,000명당 출생아 수, %)

연령	1981년(A)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B)	B/A	B-A
20~24세	440	271	360	320	377	386	313	202	45.9	-238
25~29세	279	192	234	237	264	224	250	231	82.8	-48
30~34세	97	41	53	65	88	86	106	108	111.3	11
35~39세	23	6	7	15	11	14	16	17	73.9	-6
40~44세	3	4	1	1	4	4	2	4	133.3	1
45~49세	0	0	0	0	0	0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각연도

[그림 3]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1981~2005년도



□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는 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와 상관성 있음

- 추가 자녀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소득이 적어서 등의 경제적 요인이 53.0%로 가장 많았고,
- 다음이, 계획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등 가치관 관련 요인(29.9%)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단위: %)

영역	1순위	2순위
경제적 이유	53.0	42.9
사회적 이유	5.1	18.2
가치관	29.9	24.7
가족	0.5	1.5
건강	3.0	3.1
기타	8.4	9.6
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3.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결혼 정책의 필요성

□ 결혼상태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혼이나 별거 등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미혼의 경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서 기혼자보다는 높으며,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나타났음

[표 7]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 전체	미혼
반드시 해야한다	14.6	5.3	7.5	6.4	14.1	20.3
하는 편이 좋다	50.6	60.5	28.3	31.9	49.7	46.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30.6	28.9	40.0	48.9	31.1	28.3
하지 않는 것이 낫다	4.2	5.3	24.2	12.8	5.0	2.6
모르겠다	-	-	-	-	-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 한편, 20-44세 기혼 부인의 경우 결혼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8%이고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로서 기혼부인의 80%가 결혼에 대한 국가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 미혼 인구 역시 결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서 3/4 이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었음

[표 8]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 전체	미혼
매우 필요함	24.1	20.5	18.0	20.4	23.8	21.0
다소 필요함	56.2	64.1	54.9	55.1	56.2	55.3
별로 필요없음	16.5	10.3	24.6	24.5	16.8	20.3
전혀 필요없음	3.2	5.1	2.5	0.0	3.1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 그러나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내용을 보면, 주택마련 지원과 결혼비용 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기혼의 경우 주택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로서 많았으며, 미혼 인구의 경우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이 24.4%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책

(단위: %)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 전체	미혼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8.9	6.1	9.2	2.7	8.8	9.6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5.9	3.0	8.0	0.0	5.9	6.5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11.2	18.2	19.5	8.1	11.5	12.6
주택마련 지원	55.0	60.6	51.7	78.4	55.2	43.2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제도	2.3	0.0	4.6	0.0	2.3	3.4
결혼비용 융자 등 지원	16.3	9.1	6.9	10.8	15.8	24.4
기타	0.4	3.0	0.0	0.0	0.4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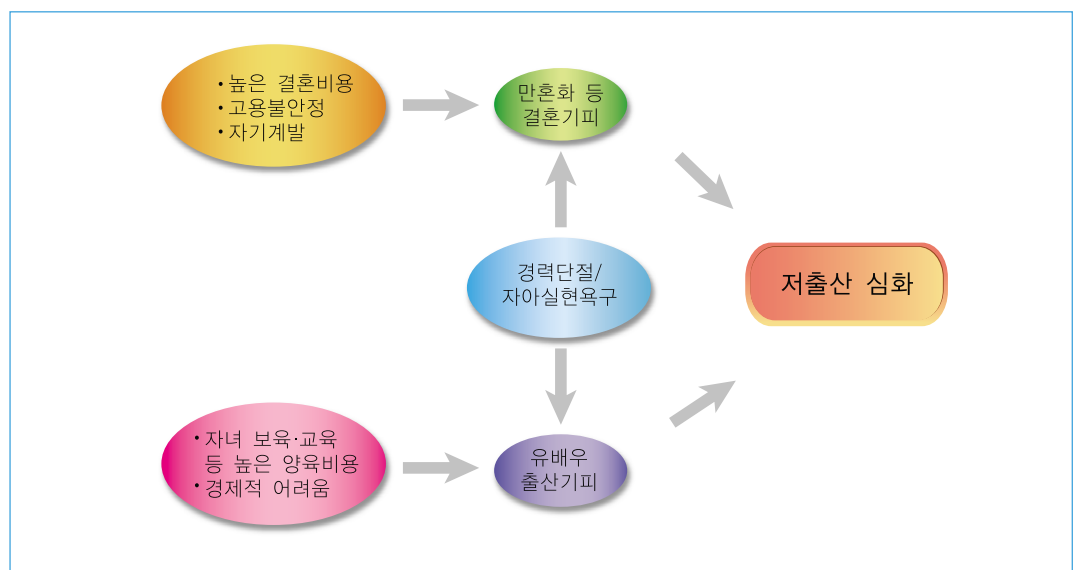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4. 정책제언

□ 저출산의 원인은 초혼연령의 증가 등 만혼화와 이로 인하여 자녀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출산 수준의 상승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 요구됨

- 남여 모두 교육기간의 증대와 취업준비 기간 확대 등의 요인으로 초혼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초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혼외출산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미혼 및 기혼 여성이 동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 친화적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그림 4] 저출산의 원인



□ 만혼 및 결혼기피 방지를 통한 결혼을 제고

- 건전혼례문화조성을 통한 결혼비용 부담 완화
-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결혼 비용의 지원 등 결혼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장치 강화
 - 미국 대학가의 부부 학생을 위한 저렴한 기숙사나 아파트 등과 같이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준비생 등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융자조건 우대 및 소득공제 확대

□ 유배우 출산을 제고

- 임신·출산에 대한 비용의 사회화
 - 산전진단검사 보험적용 확대,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등 출산관련 비용의 건강 보험 지원 강화
- 자녀 보육 및 교육 등 양육비 절감 정책 및 양육비 지원 강화
 -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강화
 - 3자녀 이상 대상 자녀의 교재교구비, 학교피복비, 교통비 등 지원
-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주거지원 강화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 상향 조정
 -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및 평형 선택시 우대
 - 주택자금 융자 확대
- 아동수당 등을 통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가족친화적·양성 평등적 가족 및 직장 문화운동 전개
 - 결혼과 출산시 직무배치, 승진 등에서의 차별 관행 철폐
- 초·중·고 교과과정 교재에 시대에 맞는 인구교육내용 반영하여 결혼·자녀가치관 정립
- 대중매체를 통한 인구문제의 심각성 홍보

변용찬 (복지서비스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02-380-8130)